

대양인쇄기계(주)

철저한 A/S · 견고한 기계 자신

기술력 갖춘 소수 종업원 양성, 사원복지 최선

같은 업종에서,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20여년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갖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서도 잦은 이동으로 이익을 좇으며 자신의 발전만을 목표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요즘 세태를 인지한다면 포장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기만 했던 70년대 초, 당시 포장기계분야의 첫 포문을 열었던 성안기계공업(주)에 입사하면서 포장기계업계에 발을 디딘 후 20여년간 꾸준히 기술을 익히고 업계의, 그리고 회사의 굴곡을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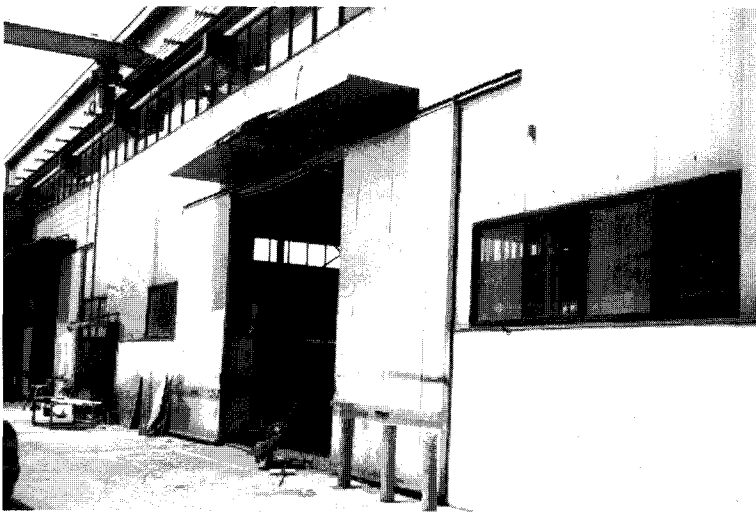
넘어온 대양인쇄기계(주) 장용순 사장의 끈기는 인정받을만 하다.

이러한 끈기의 모습을 바탕으로 91년 설립된 대양기계공업은 작은 규모지만 탄탄해 보이는 밑거름도 바로 이러한 장 사장의 오랜 끈기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폭폭 쪼다는 말이 그대로 어울릴 7월의 어느 날, 흙먼지가 뽀얀 시화공단을 가로질러 찾아간 대양인쇄기계(주)는 한참 새로 발주할 기계를 만들어내는 소음만 들릴 뿐 참으로 한적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91년 부천의 춘의수출공업단지 내에서 대양기계공업(주)로 출발한 대양인쇄기계(주)는 그로부터 6년남짓 지난 현재 그라비아 인쇄기, 코팅기, 슬리터기, 드라이라미네이팅기, 익스트루더라미네이팅기 등을 주력제품으로 삼고 있다.

성안기계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온 장 사장은 재직한 지 15년쯤 되던 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분으로부터 장



▲ 대양인쇄기계(주) 전경

사장의 기술력에 대한 동업의 제의를 받게 된다.

동업제의를 한 분의 기자재를 그대로 인수 받아 장 사장이 문을 연 대양인쇄기계(주)는 하지만 생각처럼 그다지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대양인쇄기계(주) ▲ 대양인쇄기계(주) 장용순 사장

를 설립하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지 얼마 뒤 걸프전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나 자금난과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업 초기 몇달간은 생산보다 수리 위주의 A/S 업무만으로 지탱해 가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어린 시절의 어려운 기억과 성장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스스로 토로하는 장 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끈기있게 극복해내는 슬기로운 경영력을 발휘, 지난 경험을 인정받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리대상업체의 업무를 수주하게 된다.

장 사장은 "마침 일이 풀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20여년간 몸담고 있던 성안기계(주)의 사장님께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서 차입금액이 남아 사업자금이 어느정도 다져지게 되었습니다"라며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물꼬를 트게 되었던 당시의 기쁨을 회상했다.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근면 성실한 지방출신의 민첩한 젊은이에 둔다는 장 사장은 젊었을 적 받았던 혜택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잊지 않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자리

에 서서 다시 돌려줄 줄 아는 겸허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시화공단으로 이전하며 회사명을 대양인쇄기계(주)로 변경하고 앞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 대양인쇄기계(주)는 더이상 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보다는

최대 15명을 한도로 모든 종업원들이 포장기계 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기술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윤의 배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을 지원해 종업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 역시 20여년간 근무했던 성안기계에서 자신이 받았던 혜택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원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는 장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간 5~6대의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대양인쇄기계(주)는 91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여온 기대업체이다.

"꾸준한 매출증대로 저는 물론이거니와 사원들 모두가 사기 충천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아마도 설립 이래 최초로 매출저감을 맞볼 것 같습니다"라는 장 사장은 그럼에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장 사장의 모습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최악의 경제불황이라는 96년 모든 업계가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



대양인쇄기계(주)

거나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양인쇄기계(주)는 약 25억원이라는 경이적인 매출액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작년 매출액은 아마도 당분간은 저희가 달성하기 힘들지도 모르는 초유의 매출액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힘드셨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그동안 흘려온 땀과 눈물의 댓가를 확실하게 보상받는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라고 덧붙이는 장 사장의 모습은 올해 달성한 경이적인 기록을 다시한번 갱신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차 있었다.

13명의 종업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관리파트에 상무이사 1명, 관리부장 1명, 생산파트 중 기계부·조립파트 과장 각 1명, 기술부 설계 1명, 경리부 1명, 그리고 현장 생산직 6명과 장 사장인데 대양인쇄기계(주)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기계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과장 이상의 임직원들이 모두 현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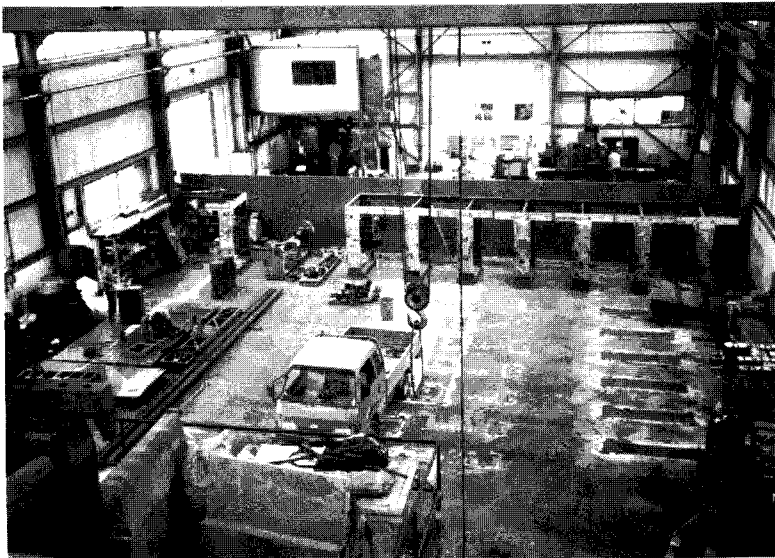
직접 투입되어 최고의 기술력으로 견고한 기계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대양인쇄기계(주)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부분이 A/S라 할 수 있는데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상무이사가 직접 A/S를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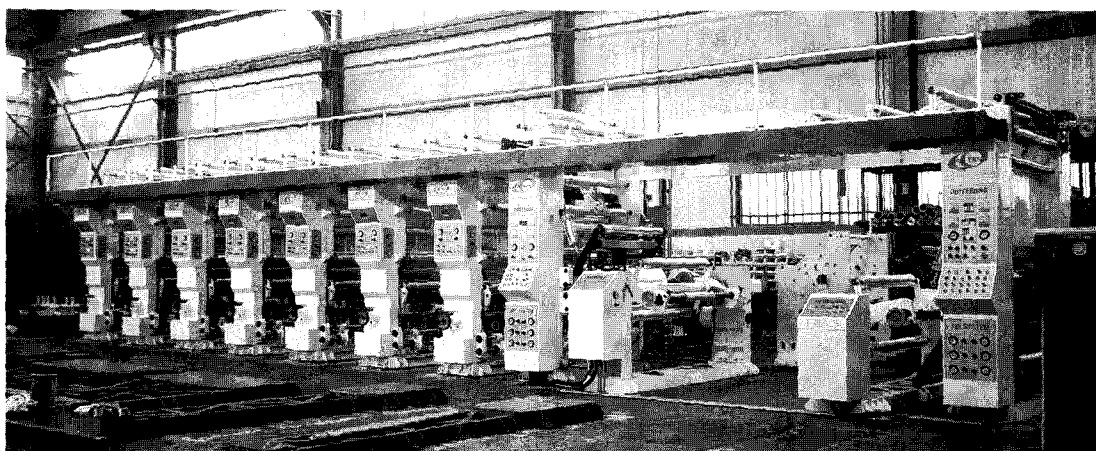
내수와 수출이 3:1정도의 비율을 이루고 있는 대양인쇄기계(주)의 수출실적은 성안기계(주)의 OEM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글로리화학의 주선으로 코오롱을 통해 영국과 싱가포르에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코오롱을 통해 영국의 코팅기를 수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때 대양인쇄공업(주) 기술발전의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근 30여년 가까이 포장기계업체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국산기계의 가장 큰 아쉬움을 외형과 디자인의 미비로 지적하는 장 사장은 앞으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관리 및 생산직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 및 출장의 기회를 최대한 골고루 부여해 외국 선진 기술 및 외관을 도입해 우리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진정한 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즉 해외시장의 특이한 모델을 대상으로 삼아 디자인을 유추, 개발해 국내 기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외국의 선진 기계와 성능의 차이가 없는 저가



▲ 대양인쇄기계(주) 내부전경



▲ 대양인쇄기계(주)가 주력으로 제작하는 그라비아 인쇄기계

의 국산 기계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포장기계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양인쇄기계(주)에 입사하고 싶다고 할만큼 사업이 번창하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장 사장의 의지처럼 대양인쇄기계(주)은 기술개발 및 회사운영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직원들에게 모든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업체이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사장과 종업원이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듣고 수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장 사장의 바람처럼 대양인쇄기계(주)의 임직원 사이에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함께 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기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서로간의 대화를 토대로 한 이해관계가 굳건히 형성되어 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함보다는 학벌과 배경이 우선하는 현 사회구조에서 학벌보다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를 가진 인자에게

기술을 지도해 단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대양인쇄기계(주)의 인력관리 형태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다.

인원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회사의 규모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종업원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7년째에 들어서며 그 결실을 거두는 대양인쇄기계(주)는 지난 7월 14일부터 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포장 및 포장기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장 사장의 다짐처럼 멀리 대의를 바라보기 위한 발돋움은 아끼지 않는 천리안을 가진 업체로 포장기계업계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해 본다. ☐

윤지은 기자